

⊙ 쌍용차 사태 7년 마침표 찍기까지...조계종은

“벼랑 끝 노동자에게 큰 힘 되겠다”

쌍용차 사태 해결 불교계 활동

2009년 8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
해고노동자 가족 대표단 면담
‘평화적 해결’ 촉구

2011년 9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33인 종교인 원탁회의’ 출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0일 국민실천’ 계획 발표
쌍용차 희생자 천도제 봉행

2012년 9월
조계종 노동위원회
희생 노동자 분향소서
10만배 정진 기도

2012년 11월
총무원장 지승스님
대한문 농성장서 단식 중인
김정우 지부장 위로 방문

2014년 2월
총무원장 지승스님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해) 만든
쌍용차 1호를 사겠다” 약속

2014년 12월
총무원장 지승스님
“문제해결 위해 종교계 차원서
논의하겠다” 약속

2015년 12월
쌍용차 노·노·사 3자
단계적 복직 등 골조로 하는
“쌍차 경영정상화 위한 합의”

“해고자가 만든 첫 차 사주겠다”
총무원장 스님 약속으로 희망
10만배, 10km행진 등 꾸준...
“마무리되면 감사인사 하고 싶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던
절박한 시절, 처음 마주한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씀했다. 쌍용차 사태 이후 총무원장
스님은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위원회를 신
설했다.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어준 것이다. 쫓겨난 노동자들과 함께 찬 바닥에
엎드리며 함께 해준 그 시간들이, 벼랑 끝 노동
자에게 큰 힘이 됐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지난 11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0만배 기도, 10km 거리 행진, 3000배, 24시
간 절야 정진, 1인 시위. 불교계가 지난 7년 동
안 거리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위
해 활동해 온 기록들이다. 지난 12월30일 쌍용차
노동자 노사가 단계적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합의
안을 마련하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쌍
용차 사태가 마침표를 찍었다. 쌍용차 해고 노동
자를 지원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 세월 고통을 견뎌온 해고 노동자들
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모든 해고 노동
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
이라고 환영했다.

목숨을 건 싸움이였다.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28명이 자살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77일 동안의
파업, 70m 높이 굴뚝 위 고공농성, 목숨을 내건
단식, 2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정진행위로 시작



총무원장 지승스님이 2012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을 찾아 격려하고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된 쌍용차 문제는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대표하
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동
자들은 막막함과 절박함에 시달렸지만 먹고 사
는 문제만 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노동 문제에 선
뜻 손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듬어 안겠다는 종단의 의지는 확
고했다.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2012년 29일째 단
식 중이던 김정우 (당시)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찾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이
후 5대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또 한번 대한문 농
성현장을 찾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불교계 행보
도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
법스님은 종교인 33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쌍용
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노동

위원회를 비롯해 불교시민사회 단체들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100일 동안 1000배 정진에 나섰
다. 지난해 10월까지도 노동위는 ‘쌍용차 투쟁 승
리를 위한 범국민대회-끝까지 함께’에 참가해 노
동자들의 곁을 지켰다.

이런 날, 쌍용차 해고 노동자 18명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김득중 지부장은 “2014년 2월, 총무원
장 스님이 ‘해고노동자들이 만든 첫 번째 차를 사
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노동자들
의 절박함을 알고 그만큼 마음을 보태주신 것 같
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단계적 복직이 잘 마무
리 되면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해 7년을 함께 해줬던 분들을 직접 뵈고 감사인사
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국내최초 사찰음식 문화공간 특별한 프로그램 ‘눈에 띄네’

문화사업단 2월까지 무료 진행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새해를 맞아 서울 안국동에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 수강생을 모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1월 체험 프로그램은 △제철 식재료를 알고 맛을 보는 ‘어린이 미각교실’(화, 오후2시) △다도를 통해 심신 안정을 배우는 ‘차 명상 체험’(수, 오후1시) △가장 손쉽게 담그는 ‘고추장 만들기’(목, 오후2시) △마늘, 파, 찹쌀을 넣지 않고 담그는 ‘김치 만들기’(금, 오후2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발우공양 체험’(토, 오전11시-오후1시)과 ‘연잎 밥 만들기’(일, 오전11시) 등이다. 선재스님, 대현스님, 정관스님, 우관스님 등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으며, 오는 2월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체험에 동참하려면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짜 3일 전까지 문화체험관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이다.

지난 12월15일 문을 연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사찰음식 복합문화공간이다. 체험관 전시공간은 사찰음식문화의 원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통사찰 공양간 재현, 전통발우 전시, 사찰의 전통장류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내외국인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이색적인 쿠킹클래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불이회, 제31회 불이상 공모

연구·실천분야 각 2000만원

불이회가 제31회 불이상을 공모한다. 시상 부문은 연구분야, 실천분야로 불교학자와 사회에 공헌하는 개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분야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 트래크 전임교원으로 불교학 및 인접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업적을 보인 학자, 실천분야는 신행 포교 봉사활동을 통해 자비행을 벌이는 불자 또는 불교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각 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burisince1986@gamil.com)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은 오는 2월29일까지 불이상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6월, 시상은 7월로 예정돼 있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구들도사’ 축조한 칠불사 아자방, 비밀 풀리나

(☞: 신비한 온돌방)

불교의 선(禪)문화와 주거온돌문화가 결합된 건축물로, 한 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100일 동안 지속된다는 하동 칠불사 ‘아자방(亞字房)’의 천년 비밀이 풀릴 유구가 확인됐다.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칠불사 아자방지 구들 보수공사 과정에서 원형 아궁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칠불사 아자방은 방고래를 ‘아(亞)자’ 모양으로 놓은 방으로, 신라 효공왕(재위연간 897~912년)에 ‘구들도사’라 불리던 담공선사(曇空禪師)가 이종은돌 구조로 처음 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담공선사 축조 당시 한번 불을 지피면 100일간 따뜻해 신비한 온돌방이라 불렸다고

불 피우면 온기 100일 ‘지속’ 원형 아궁이 흔적 발견 관심

한다. 방의 길이는 약 8m로, 방안 네 귀퉁이에 70cm 높이의 좌선대가 있고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은 경행처로, 구조가 아(亞)자라 닮았다고 해서 아자방이라 불린다. 1830년(순조 30년) 칠불사에 화재가 발생해 아자방도 소실됐는데 금담, 대은스님이 5년 만에 중창하면서 아자방도 중건됐다. 이후 1948년 다시 소실됐다가 1983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돼 경남도 유



경남 하동군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칠불사 아자방 구들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원형 아궁이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하동군청

형문화재 제144호로 지정됐다.

하동군은 아자방 구들 보수공사 중 아자방지의 아궁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궁이 바닥 1m 하부에 수리 이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궁이 형태로 추정되는 유구를 발견했다. 도자기 굽는 굴가마 형태로 보이는 유구가 나오면서 고령훈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류창환 극동문화재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 확인 끝에 아자방 수리 이전의 아궁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아자방지의 추가조사를 위해 학술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아자방지 아궁이의 유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현경 기자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지회구성 일정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7장 집행부서 및 지방조직

제21조(지방조직)

1.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지회를 둘 수 있고, 시, 군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앞 제3조 사무소 참조). 다만 총회 결의에 의해 각 지회의 개설 및 관할 구역을 정한다.
2. 지회에는 지회장 1인과 지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 교무, 재무의 3직을 둔다.
3. 분회에는 분회장 1인과 분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3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 및 선임)

1. 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부장 및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지회장은 지회위원의 결의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지회상직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5. 지회장 및 분회장은 지회와 분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비구니회의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구비구니회 지회 구성 일정◁

충북·대전·충남(세종)지회	1. 22.(음 12.13) 금 오후 2시	대전시 중구 보문산 공원으로 49번안길 57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
대구·경북지회	1. 25.(음 12.16) 월 오후 2시	대구시 남구 명덕로 54길 34 서봉사
서울·경기·인천지회	1. 26.(음 12.17) 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광명로 31길 56 전국비구니회관 큰법당
부산지회	1. 28.(음 12.19) 목 오후 3시 30분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해운대조선비지 서봉사
경남지회	1. 29.(음 12.20) 금 오후 2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가지산 석남사
제주지회	1. 30.(음 12.21) 목 오후 2시	제주시 독짓골8길 26(도남동) 보덕사
광주·전남지회	2. 24.(음 1.17) 수 오전11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321번길 2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전북지회	2. 24.(음 1.17) 수 오후 4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3 덕진공원앞 고궁
강원지회	2. 29.(음 1.22) 월 오후 2시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오대산 월정사 육수암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각 지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처 : 02)3411-8103 ~ 4 전국비구니회관 총무소